다문화가정 한국남성 배우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이은희*, 이정란**

The Effect of Cultural Adaptation Stress of the Husbands of Married Migrant Women on Marital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Eun Hee Lee*, Jung Ran Lee**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한국남성 배우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의 매개역할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은 부산·울산 그리고 경상남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183명의 다문화가정 한국남성 배우자들이다. 다문화가정 한국남성 배우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한국남성 배우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의 매개역할의 검증하기 위해서는 매개회귀분석과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다문화가정의 한국남성 배우자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족탄력성이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정 한국남성 배우자들의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가족탄력성 강화를 통해 제시하였다.

주제어 : 다문화가정 한국남성 배우자, 문화적응스트레스, 가족탄력성, 결혼만족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on effect of family resilience in the relations between cultural adaptation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subjects were 183 married migrant women' Korean husbands who live in Pusan·Ulsan city and Kyongnambuk province. Collected date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percentage,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 test. The results confirm the mediation effect of family resilience in the relations between cultural adaptation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se findings, intervention strategies that focus on increasing the family resilience of the married migrant women' Korean husbands were suggested.

Key Words : Married migrant women' Korean husbands, Cultural Adaptation Stress, Family Resilience, Marital satisfaction

1. 서 론

국제결혼은 국적을 달리하는 남녀가 결혼하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우리사회는 국제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아직 자연스런 동화는 부족한 실정이다[7].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결혼건수는 1990년도(4,710건)부터 서서히 증가하여 2000년(12,319건)에는 2.6배 증가했고 2009년도(33,300건)에는 10.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해마다 3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교신저자)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논문접수: 2012년 10월 2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2년 11월 7일

만건 이상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3]. 특히 2005년 농림어업 종사자(남자)의 경우 총 결혼 8,027건 중 국제결혼이 2,885건(35.9%)으로 3건 중 1건을 차지하며, 이는 농어촌의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정착되고 있다[11].

결혼이란 서로 다른 두 개의 체계가 변화해서 제 3의 하위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므로[4] 서로에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동일한 가치의식을 배우며 자란 내국인끼리의 결혼에서도 문화적 차이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국제결혼의 경우에 문화적 차이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2].

Berry[13]는 문화적 상황의 변화와 이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체험하게 되는 높은 스트레스를 문화적응스트레스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과 같이 타 문화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 매우 높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체험하기도 하는데, 결혼의 또 다른 당사자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인 남성 배우자들 역시 아내의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체험하게 된다.

다문화가정의 한국남성 배우자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아내 나라의 문화에 대한 자신의 이해부족과 부정적 인식, 그리고 주변의 편견으로 인하여 외부에 떳떳해질 수 없는 부담 때문에 문화적 차이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함으로써[6] 강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이는 부부간의 결혼만족도를 떨어뜨리며, 심할 경우에는 가정폭력, 별거, 이혼 등으로 인한 가정해체, 가족기능의 상실 등을 불러일으킨다[5].

2007년 대법원이 국제결혼 및 이혼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는 2003년 2,784건에 비해 2006년에는 6,187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더구나 2006년에는 국제결혼이 39,071 건으로 2005년 43,121에 비해 줄었는데도 국제이혼은 오히려 크게 늘고 있는 것[10]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제결혼가정의 적응상의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국제결혼한 모든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낮고 결혼생활에 위기가 높은 것은 아니다. 가족학자들은 왜 어떤 가족은 전환과 위기에 보다 탄력적으로 잘 대처하고 극복하며,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성장까지 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가족들은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쉽게 좌절하고 파괴되는지를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8]. 최근 고위험 혹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보다 탄력적으로 잘 대처하고 극복하는 적응적인 가족들에 대한 연구들은 가족 탄력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가족 탄력성은 '가족이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잘 적응하고 변화에 직면하여 혼란에 저항하도록 돕는 가족의 특징, 차원, 속성'[15]으로 정의되며, 가족탄력성 접근은 전통적인 결점 중심접근에서 강점 중심접근으로의 변화이다. 즉 가족이 어떻게 실패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공 할 수 있는가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성 배우자들은 결혼이라는 발달단계상의 위기와 함께 아내와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어려움과 그리고 주변의 편견으로 인하여 외부에 떳떳해질 수 없는 이중적인 부담을 경험하고 있는[6] 고위험집단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정 한국남성 배우자들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탄력적인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그들의 결혼만족도 향상을 돕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한국남성 배우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의 매개역할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는 가족탄력성에 근거한 강점적 관점에서 다문화가정 한국남성 배우자들의 결혼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입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자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은 부산·울산 그리고 경상남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성 배우자들이며, 연구대상자 선정을 위한 표집방법은 의도적 표집과 눈덩이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집과정은 먼저 각 지역 소재 다문화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글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봉사단체 등에 대한 리스트를 만든 후 전화 또는 공문발송을 통해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를 수락한 기관에는 설문조사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다문화가정의 한국남성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결혼이주여성을 통해 각 나라별 자조모임

에 참석하는 동료를 소개받아 그들의 남편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한 뒤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총 187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그 가운데 무응답이 지나치게 많은 4부를 제외한 총 183부가 분석되었다. 조사기간은 2011년 10월 25일 부터 2012년 1월 25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2.2 조사도구

2.2.1 문화적응 스트레스

다문화가정의 한국남성 배우자의 문화적응상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Sandhu and Asrabadi[19]이 개발한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Acculturative Stress Scale)를 이무영이 다문화가정의 한국인남성배우자에게 맞게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문화 전달스트레스, 다문화 수용스트레스, 그리고 지각된 차별감으로 구성된 3개 영역의 21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에 따라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도 높다. 이 척도의 각 하위변인에 대한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Alpha의 값이 모두 .79에서 .90 사이를 나타내어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2.2.2 가족탄력성

2.2.2.1 가족의 내구력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과 적응자원으로서의 가족내구력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Marilyn McCubbin 등[16]에 의해 개발된 FHI(Family Hardiness Index)를 사용하였다. FHI는 '수행력', '도전력', '통제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에 따라, 점수가 높을수록 내구력도 강하다. 이 연구에서의 FHI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Alpha의 값이 .74로 나타나,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2.2.2.2 가족의 의사소통 유형

가족의 의사소통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Marilyn McCubbin 등[17]에 의하여 개발된 FPSC(Family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을 사용하였다. FPSC는 두 가지 유형의 가족 의사소통을 사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즉 선동적인 성격으로 스트레스적인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선동적 유형'의 의사소통과 지지와 관심을 전달하고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호의적 유형'의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을 Likert 4점 척도에 따라 0-그렇지 않다, 3-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동적 유형'의 의사소통은 역산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의 FPSC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Alpha의 값이 .85로 나타났다.

2.2.2.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가족들이 그들의 지역사회 안에서 지지를 받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Hamilton McCubbin 등[18]에 의해서 개발된 SSI(Social Support Index)를 사용하였다. SSI는 가족들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었다고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고, 그리고 지역사회로부터 정서적 지지, 존중의 지지, 그리고 연락망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는 9문항의 도구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도가 높다. 이 연구에서의 SSI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Alpha의 값이 .82로 나타났다.

2.2.2.4 가족의 대처전략

가족의 대처전략을 알아보기 위해서 McCubbin에 의해 개발된 F-COPES(Famiy Crisis Oriented Personal Evalua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F-COPES는 세 가지의 내면적 그리고 다섯 가지의 외면적 대처전략의 사용빈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외면적 대처전략은 본 연구의 사회적 지지요인과 중복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의 내면적 대처전략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세 가지의 내면적 대처전략은 스트레스적인 경험을 보다 이해 가능하고 다룰 수 있는 방법으로 재정의하는 능력인 '재정의'와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 그리고 문제에 대한 회피적 반응인 '수동성'의 정도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에 따라 1-강하게 반대, 5-강하게 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동성'은 역산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본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Alpha의 값이 .82로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2.2.3 결혼만족도

본 연구에 사용된 결혼만족도의 척도는 Roach,

Frazier & Bowden에 의해 개발된 'MSS(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전병희[9]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에 따라,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도 높다. 본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Alpha의 값이 .92로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문화가정 한국남성 배우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한국남성 배우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가족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Baron과 Kenny[12]가 제시한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Sobel test[20]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분석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배우자의 출신국가는 베트남이 5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국(18.6%), 캄보디아(10.4%)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40-44세 사이가 40.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30대(32.8%)이며, 45세 이상도 26.8%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 69.4%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국제결혼 적응교육을 받은 사람은 3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명(%)	변인	구분	명(%)
배우자 출신국가	베트남	98(53.6)	결혼기간	2년 미만	72(39.3)
	필리핀	11(6.0)			
	몽골	14(7.7)		2~4년 미만	64(35.0)
	중국	34(18.6)			
	태국·캄보디아	19(10.4)		4년이상	47(25.7)
	기타	7(3.8)		Min=1, Max=162	
				Mean=34.64, S.D=26.62	
연령	30대	60(32.8)	종교	불교	67(36.6)
	40-44	74(40.4)		천주교	4(2.2)
	45이상	49(26.8)		기독교	17(9.3)
	Min=31, Max=68			무교	94(51.4)
	Mean=42.05, S.D=5.59			기타	1(0.5)
학력	중졸이하	20(10.8)	국제결혼 적응교육	있다	56(30.6)
	고졸	127(69.4)		없다	127(69.4)
	대졸이상	34(19.7)		무응답	4(1.7)
월소득 (만원)	150미만	18(9.8)	현재직업	전문직·사무직	31(17.5)
	150~200미만	63(34.4)		자영업/판매/서비스	32(17.5)
	200-300미만	81(44.3)		농업·어업·단순노무직	29(15.9)
	300이상	21(11.5)		기능·기술직	89(48.6)
				무직	1(0.5)

3.2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분석

다문화가정 한국남성 배우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3단계 매개회귀분석(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은 회귀분석을 하여 얻어지는 회귀계수들이 다음에 제시된 조건들을 만족시키면 충족될 수 있다.

1단계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매개변수(가족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존재하여야 한다. 2단계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종속변수(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존재하여야 한다. 3단계 회귀분석에서는 매개변수(가족탄력성)는 종속변수(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독립변수(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효과가 3단계의 회귀분석보다 2단계의 회귀분석에서 더 클 경우 매개변수의 역할이 검증된다[12].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투입한 매개회귀분석의 방법을 사용하며 3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유의미적이지 못하면 완전매개역할을 하고, 유의미적이면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3단계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수(가족탄력성)가 통제되었을 때 독립변수(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종속변수(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을 때 독립변수(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종속변수(결혼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고 단지 매개변수(가족탄력성)를 통해서만 영향을 주는 경우로 완전매개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3.2.1 1단계: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가족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검증

본 연구의 매개회귀분석의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매개변수인 가족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 직업, 월소득, 결혼기간을 통제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가족탄력성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연령, 직업, 월소득, 결혼기간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족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설명력은 수정된 R^2= .385로 38.5%가 설명되고 있으며, 설명력에 대한 모형의 적합성(F = 23.739, p = .000)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본 회귀모형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β = -.560, p = .000)는 가족탄력성에 p < .001 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정 한국남성 배우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가족탄력성은 약해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표 2〉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족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1단계)

모형	회귀계수			t	p	공선성통계량	
	B	표준오차	β			공차	VIF
(상수)	4.708	.245		19.253	.000		
연령	.000	.004	-.005	-.085	.933	.976	1.025
직업(D)	-.226	.064	-.206	-3.526	.001	.993	1.007
월 소득	.024	.020	.072	1.224	.223	.982	1.019
결혼기간	-.001	.001	-.066	-1.077	.283	.912	1.097
문화적응 스트레스	-.484	.052	-.560	-9.321	.000	.935	1.069

R	R^2	$Adj\ R^2$	추정표준오차	F	p
.634	.401	.385	.328	23.739	.000

주) (D)표시는 더미변수임(0=블루칼라 및 자영·농어업, 1=화이트칼라)

3.2.2 2단계: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본 연구의 매개회귀분석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종속변수인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 직업, 월소득, 결혼기간을 통제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단계)

모형	회귀계수			t	p	공선성통계량	
	B	표준오차	β			공차	VIF
(상수)	4.676	.420		11.139	.000		
연령	.010	.008	.092	1.318	.189	.976	1.025
직업(D)	-.170	.110	-.107	-1.549	.123	.993	1.007
월 소득	.035	.034	.072	1.035	.302	.982	1.019
결혼기간	.000	.002	-.015	-.210	.834	.912	1.097
문화적응 스트레스	-.461	.089	-.366	-5.164	.000	.935	1.069

R	R^2	$Adj\ R^2$	추정표준오차	F	p
.408	.166	.143	.562	7.055	.000

주) (D)표시는 더미변수임(0=블루칼라 및 자영·농어업, 1=화이트칼라)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14.3%(AdjustedR^2 = .143)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β = -.366, p = .000)는 결혼만족도에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 한국남성 배우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결혼만족도는 낮아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3.2.2 3단계: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의 매개회귀분석 3단계에서는 종속변수인 결혼만족도에 대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보기 위하여 1차로 매개변수인 가족탄력성을 통제하고 2차로 독립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표 4>와 같다.

본 매개회귀분석에서 1단계(문화적응 스트레스→가족탄력성)와 2단계(문화적응 스트레스→결혼만족도)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분석에서의 1·2단계의 조건이 충족되었으며, 3단계에서는 가족탄력성(매개변수)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독립변수)를 차례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통제변수와 '가족탄력성'은 '결혼만족도'를 33.4%(Adjusted R^2= .334)설명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나 3단계의 조건도 충족되었다. 그러나 매개변수인 가족탄력성을 통제하였을 때, 독립변수인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설명력은 0.2%가 줄어든 수정된 R^2 = .332로 33.2% 결혼만족도를 설명하였고 변화된 설명력은 통계적(F = .472, p = .493)으

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립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2단계(β2 = -.366, p = .000)에 비해 3단계(β4 = -.053, p = .493)에서 그 영향력이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탄력성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해 완전매개변인으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족탄력성의 완전매개효과가 의미하는 바는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가족탄력성이 강하다면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감소시켜 보다 높은 결혼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 한국인 남성배우자의 결혼만족도 향상을 위한 실천적 개입을 계획할 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그들의 가족탄력성을 증가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 결혼만족도에 대한 가족탄력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3단계)

변 인	Model Ⅰ		Model Ⅱ		공산성 통계량	
	B(β)	p	B(β)	p	공차	VIF
(상수)	.513	.250	.840	.199		
연령	.010(.096)	.120	.010(.094)	.126	.976	1.025
직업(D)	.020(.013)	.839	.014(.009)	.892	.928	1.078
월 소득	.015(.031)	.614	.015(.031)	.609	.973	1.027
결혼기간	.000(.015)	.812	.000(.022)	.734	.906	1.104
가족탄력성	.860(.591)	.000	.815(.560)	.000	.599	1.671
문화적응스트레스			-.066(-.053)	.493	.627	1.594
R	.593		.595			
R^2 ($adj\,R^2$)	.352(.334)		.354(.332)			
ΔR^2	.352		.002			
ΔF (p)	19.249(.000)		.472(.493)			

주) (D)표시는 더미변수임(0=블루칼라 및 자영·농어업, 1=화이트칼라)

한편, 이러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방정식을 통해 도출된 값은 Z분포를 따르며, Z값을 분석하여 유의성을 판단하게 된다. Sobel's Z-Score의 방정식은 아래에 제시한 수식과 같다.

$$Z_{ab} = \frac{ab}{\sqrt{b^2 SE_a^2 + a^2 SE_b^2}}$$

a: 독립변수(문화적응 스트레스)→매개변수(가족탄력성)의 비표준화 경로계수,
b: 매개변수(가족탄력성)→종속변수(결혼만족도)의 비표준화 경로계수
SE: 표준오차

일반적으로 Sobel test의 Z값은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영가설이 기각되므로 매개효과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개효과의 유의미성 검정의 결과를 살펴보면,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탄력성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 있어 완전매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Sobel test 검증결과

매개변수를 통한 경로	간접효과	Z	p
문화적응스트레스→ 가족탄력성→ 결혼만족도	-.314	-4.469	.000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한국남성 배우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의 매개역할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는 가족 탄력성에 근거한 강점적 관점에서 다문화가정 한국남성 배우자들의 결혼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입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과제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한국남성 배우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가족탄력성의 완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가족탄력성이 강하다면,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감소시켜 보다 높은 결혼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한국남성 배우자들의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개입을 계획할 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그들의 가족탄력성을 증가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정 한국남성 배우자의 가족탄력성 강화를 통한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키

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에서 완전 매개효과가 검증된 가족탄력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족탄력성의 하위변인인 '가족내구력'강화와 '적응적인 대처전략'의 사용, '효과적 의사소통'기술 향상,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향상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가족내구력 강화'를 위해서는 '내구력 강화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14]. 내구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국제결혼으로 인한 공통적인 스트레스적 상황을 경험하는 다문화가정 한국남성 배우자집단에게는 집단 상담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가족내구력 강화를 위한 상담에서는 ① 초점화 ② 상황적 재건 ③ 보상적 자기 개선 ④ 역설적 의지 기술이 활용된다[8].

둘째, '적응적인 대처전략의 사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적 사건과 어려움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수용하도록 하며,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명상적 이완 훈련을 통하여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나 스트레스적 사건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효과적 의사소통기술의 향상'을 위해서는 역할전환이나 행동시연의 기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역할전환의 기법을 이용해서는 선동적인 의사소통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직접경험해 보도록 함으로써 의사소통방법에 대한 통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행동시연의 기법을 통해서는 호의적인 의사소통 기술의 연습과 이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결혼가정에서는 의사소통의 한계성과 언어해석의 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을 심각하게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 남편들은 극단적인 감정 표출의 방법으로 언어적・신체적・정서적・심리적・경제적 폭력과 사회적 고립을 통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1]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때 역할전환의 기법을 통해 남편들이 낯선 문화와 언어를 익히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아내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도록 도울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행동시연을 통해서는 실제적으로 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으로 보다 호의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여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나 느낌을 진지하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족교육', '자조집단의 활용', 그리고 '공적인 지지체계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결혼가정은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지지가 매우 필요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변의 편견으로 인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를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거나 속이는 등 외부에 떳떳하게 표현하지 못하기도 함으로써 이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결혼전 준비 프로그램'에서 배우자 뿐 아니라 확대가족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가족교육'을 실시하여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와 서로간의 중요한 지지체계로서의 가족 역할의 증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제결혼가정의 가족들로 구성된 '자조집단'은 그 구성원들이 모두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문제와 어려움을 더 잘 이해 할 수 있고 서로에게 감정을 표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 지지 체계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조집단'을 통한 서로간의 지지와 원조의 활성화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공적인 지지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복지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국제결혼가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공적인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편견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표집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확률표집방법을 사용하지 못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전국적 규모의 확률적 표집을 사용한 연구를 통하여 농촌과 도시 등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가정 한국남성 배우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결혼이주여성 출신국의 문화적 차이에 따라 결혼 후 그들과 배우자가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강도나 이에 따른 결혼만족도도 다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화권 출신의 결혼이주여성들을 출신국 별로 나누어서 연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출신국 별로 나누어서 연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김상임(2004). 상담사례를 통해 본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삶. 이주여성 인권센터 창립 3주년 심포지움.

[2] 김양희(2008). ″남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김혜경・도미향・문혜숙・박충선・손홍숙・오정옥・홍달아기(2010). 가족복지론. 공동체.

[4] 송성자(1995). 가족과 가족치료. 경기: 법문사.

[5] 여성가족부(20009).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6] 이무영(2010). “다문화가족 한국 남성 배우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의사소통능력, 사회적지지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이수연(2008). “결혼이민여성가족의 스트레스가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이은희(2000). 가족탄력모델을 이용한 정신분열병 환자가족의 부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1, 173-200.

[9] 전병희(2009).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중앙일보. 2007년. 4월 16일자.

[11] 통계청(2006). 혼인통계결과.

[12] Baron, M. A. and Kenny, D.(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r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pp.1173-1182.

[13] Berry, J. W. and Kim, U.(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al Review, Vol.21, pp.491-511.

[14] Maddi, S. R. and Kobasa, S. C.(1984). The hardy executive: Health under stress. Homewood, Ill: Dow Jones-Irwin

[15] McCubbin, M. A. & McCubbin, H. I. (1998). Resiliency in families: A conceptual model of family adjustment and adaptation in response to stress and crisis. In H. I McCubbin, A. I. Thompson & M. A. McCubbin, Family assessment: Resiliency, coping and adaptation-inventories for research and practice.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System.

[16] McCubbin, M. A., McCubbin, H. I., and Thompson, A. I.(1986). Family Hardiness Index(FHI). In H. I. McCubbin, A. I. Thompson, and M. A. McCubbin,(1996). Family assessment: Resiliency. coping and adaptation- Inventories for research and practice. (pp.239-306).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System.

[17] McCubbin, M. A., McCubbin, H. I., and Thompson, A. I.(1987). Family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Index. In H. I. McCubbin and A. I. Thompson(1989). Balancing work and family life on Wall Street: Stockbrokers and families coping with economic instability. Edina, MN :Burgess International.

[18] McCubbin, H. I., Patterson, J., Cooke, B., and Rossman, M.(1983). Social Support Inventory(SSI). St. Paul,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19] Sandhu, D. and B. R. Asrabadi,(1994) “Development of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 pp. 435-448.

[20] Sobel, M.(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t(Ed.), Sociological methology. San Francisco, CA: Jossey-Bass.

이 은 희

・1982년 2월: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행정학사)
・1984년 2월: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행정학 석사)
・ 1997년 2월: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행정학 박사)
・1999 3월~현재: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노인복지, 가족복지
・E-Mail: leh@dongguk.ac.kr

이 정 란(정욱)

・ 2010년 2월: 동국대학교 선학과 졸업
・ 2012년 8월: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관심분야: 가족복지, 노인
・E-Mail: china108@hanmail.net